

2025
고2 문학
창비

2025 고2 문학 창비 | 2(2)(1) 예덕선생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직전 보강



선생님! 「예덕선생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작품 속 특정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 작품의 작가가 선글자의 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선글자는 참된 벗 사귀고 바람직한 인간상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벗 사귀고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자목은 엄 행수의 미천한 외면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 체면, 외양에 집착하는 당대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단다.



반면, 선글자는 엄 행수의 내면적인 성품을 중시하여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 잇속과 아첨으로 맺어지는 세속적 사귀고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 한다는 참된 벗 사귀고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지.



선글자가 설명하는 '예덕 선생'의 모습이 바람직한 인간상에 해당하는 것 맞나요?

맞아. 엄 행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리고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만 그에 성실하게 임해.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알지. 또한 자신의 직분이나 처지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지 않아. 작가는 선글자의 말을 빌려 이러한 삶을 예찬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양반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어.



이 작품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 형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단다. 그 외에도 속담이나 음성 상징어, 인용, 설의법, 비유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해.



네. 감사합니다.

2025
고2 문학
창비

2025 고2 문학 창비 | 2(2)(1) 예덕선생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단원 도입 글 분석

문학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수용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 생각**(문학의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문학의 표현 방식)하여 표현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생각**(창작 의도, 주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 속에 표현된 작가의 정서나 문제의식에 공감**(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① - 공감적 수용)할 때, 우리는 그 작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은 다양하기 마련이므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읽을 필요**(문학 작품의 내용을 주체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함.)가 있다.

▶ 문학의 공감적 수용

또한 우리는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용**(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② - 비판적 수용. **작년과 달리 「예덕선생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은 **문학을 접할 때 개성 있는 관점을 갖추게 하고**(비판적 수용의 효과 ①), **작품의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 준다.**(비판적 수용의 효과 ②) 나아가 **주체적인 안목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③ - 창의적 수용)은 문학 작품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러한 [작품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타인의 관점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작품 감상의 결과를 공유할 때의 올바른 태도)

▶ 문학의 비판적·창의적 수용

문학과 매체

문학 작품은 **언어를 독자에게 전달**(매체의 역할)해 주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 [문자가 없던 시절 문학은 **노래나 구술**(문자 발달 이전의 문학 전달 매체)로 전승되었으나, 문자와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주로 **인쇄 매체**(문학의 일반적 전달 매체)로 생산·유통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문학 작품의 소통은 신문, 잡지, 단행본 등 기존의 인쇄 매체 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인쇄 매체, 방송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등 →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 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됨.)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학 전달 매체의 변화)

▶ 문학의 전달 매체의 변화

한편 **디지털 통신 매체**(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함.)가 다양해지면서 **문학 작품의 내용은 문자, 그림, 영상, 소리 등이 결합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전달**(문자 외의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며 그 표현 방식도 변함.)되고 있다. 특히 **쌍방향 소통이 가능**(인터넷 매체의 특성)한 인터넷 매체는 그동안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었던 독자를 능동적인 독자로 바꾸어 놓았다. 작가가 **웹진**((webzine)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만들어 보급하는 잡지)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 문학 작품을 올리면 [독자들이 **즉각적으로**(인터넷 매체의 특성) 감상을 밝히고 작품을 평가하며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창작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도 가능]([]: 디지털 시대의 문학 -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 **디지털 시대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생산과 수용 양상에 대한 내용의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해진 것이다.

▶ 디지털 통신 매체의 발달과 독자의 능동적인 작품 수용

매체들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작품의 미적인**

특성이나 감상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전달 매체의 특성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작품 감상이 달라지기도 함.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이유. **소설과 만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로 구현된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로 제작된 작품**(연속된 영상과 음성을 통해 내용을 전달함.)과 **만화로 제작된 작품**(그림과 글, 칸을 통해 내용을 전달함.)은 그 미적 특질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매체의 특성을 알고,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해야 한다.]([]: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

▶ 매체로 구현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

지문 분석

< **선글자(蟬橘子)**('선글당'이라는 호를 썼던 서얼 출신의 조선 후기 문인 이덕무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됨.)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서울 종로의 탑골 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지 석탑을 가리킴.) 동쪽에서 사는데]([]: 구체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임.) [**마을 안의 똥거름을 처내는**(깨끗하지 못한 것을 쓸어 모아서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다.)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업 행수의 직업. 업 행수의 비천한 신분이 드러남. 이후 드러나는 업 행수의 삶의 태도와 대조됨.)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업 행수(行首)**(예덕 선생을 지칭하는 말)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일을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업은 그의 성이다. >< >: 전(傳)의 '인정 기술(인물의 가계, 신분, 성명, 거주지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 부분에 해당함. **작품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이 작품은 기-서-결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전(傳)으로 인물에 대한 소개와 행적, 작가의 인물의 삶에 대한 논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

자목(子牧)(선글자의 제자. 선비라는 우월감을 갖고 명분, 체면, 외양에 집착함. →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 선글자에게 물었다.

< “그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땀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벗은 한 몸처럼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 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선글자의 덕망이 높아 많은 양반들의 추앙을 받고 있음이 드러남.)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 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서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자목의 태도 - 외적 조건(신분,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함. → 체면을 중시하는 당시 양반 계층의 허위의식을 대변함.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지위와 체면에 얽매어 스승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목은 양반 계층의 허위의식을 나타낸 인물로 볼 수 있어요.'**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 행수' 및 벗 사귀에 대한 '자목'과 '선글자'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의 인격**(선글자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 내적 조건)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서로 사귀 정)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하**(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아래)를 **하직**(어떤 곳에서 떠남.)하려고 합니다.]([]: 천한 자(업 행수)를 가까이하는 스승의 행동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 자목이 선글자의 문하를 떠나려는 이유) >< >: '자목'과 '선글자'가 업 행수와와의 교우 문제로 갈등함.)

▶ 스승 선글자에 대한 제자 자목의 비판

[**선글자**(참다운 교제를 말하며 당시 양반층의 모순과 위선을 평가함. →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해당 작품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 형식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냄. **작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대화, 문답 형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식의 옳은 선지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거기 없게. 벗에 대한 이야기(참된 벗 사귀의 도리)를 내 자네에게 해 줘.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곳을 못 한다(자기 허물은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뜻 → 자목이 스스로 잘못을 깨치지 못하므로 가르쳐 주겠다는 의미가 담김. 관용적 표현을 활용함. 유사 속담: 종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네. <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처(좋은 부분이나 요소, 장점)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듣고 싶어서 단점을 말해 달라고 이야기를 꺼냄.) 그런 때 칭찬만 하면 아침에 가까워서 멧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홍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자기 장점을 듣고 싶어서 단점을 말해 달라고 한 사람의 속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단점만 지적할 때의 문제점)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어름(말이나 행동을 똑똑하게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양) 당찮은 탄전을 한단 말일세.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김.)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골(벌거 성이 나서 내는 기운)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듣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음.)

그러다가 숨겨 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잘못은 머물어물 넘어가고, 듣고 싶어 하는 장점을 명확하게 알려 주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 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묘리(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 주는 묘수. 묘리: 묘한 이치)가 있네 그려.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상대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함. → 세속적 사귀의 요령. 구체적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함.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선글자’가 이러한 사귀의 방법을 긍정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 >: 세속적인 사귀의 방법 -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해 줌. → ‘선글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하는 세태)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한심을 사기 위해 말을 교묘히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교언영색’의 태도를 들어 제자에게 반문함. 질문을 통해 ‘자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함.)”

▶ 세속적 사귀에 대해 반문하는 선글자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뺄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 놈이 하는 버릇(잇속을 챙기거나 비굴하게 아침하는 태도를 말함. →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가 드러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 세속적 사귀를 부정하는 자목

선글자가 말하였다.

“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미천한 자인 엄 행수와와 사귀.) 있지 않고 여기(잇속과 아침으로 사귀는 모습) 있는 것일세 그려.] ([]: ‘선글자’가 신분이 미천하고 천한 일을 하는 엄 행수와 교우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귀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님. 구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저기’와 ‘여기’의 대립을 통해 청자의 가치관이 화자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다고 설득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잇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침으로 사귀네.(‘선글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세태)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세 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 잇속과 아침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쉽게 변함.) 그렇기 때문에 잇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잇속과 아침으로 맺어지는 세속적 사귀에 대한 비판)일세.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진실한 사귀에는 가식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음.)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참된 벗 사귀의 도리 →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제 의식 중 하나인 참된 벗 사귀의 도리가 드러난 부분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귀는 벗(해당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과장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스스럼없이 속내를 털어놓고 소탈하게 대화하는 친구’의 **옳은 선지**

로 출제되었습니다.)은 천 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 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 세.

▶ 가식적이지 않은 참된 벗 사림의 도리

저 **엄 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선글자와 친해지려 다가서는 세속적 사람들과 대비되는 엄 행수의 태도 - 자신을 알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선글자'의 안목이 드러남. 해당 작품은 소외된 계층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키는, 당대에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음. → 작가의 파격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반영됨. **작년과 달리 '엄 행수'와 유사한 유형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제시하고, 각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식의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가 밥을 자실 때에는 굴떡굴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쿵쿵, 웃음을 웃을 때에는 허허,**(음성 상징어를 통해 꾸밈없이 소탈하게 살아가는 엄 행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냄. **작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짚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꾸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짐을 실기 위하여 지게에 엮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을 짚어 지고 뚝거름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엄 행수) 구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시월로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 꾸밈없이 소탈하게 살아가는 엄 행수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 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 똥, 돼지우리에서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 열거법)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 질해 가도**(사람들이 꺼리는 똥을 치우는 일을 성의껏 해내는 모습. 걸태질하다: 엮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재물 따위를 마구 긁어모으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똥을 '귀한 보물'처럼 쓸모 있는 것으로 가치를 부여하여 개성적인 관점을 드러낸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삼을 들고는 허리를 꾸부리고 꺼불 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비유법)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려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무실역행(務實力行 :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행함.)의 태도)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엄 행수의 태도 - 안분지족(安分知足))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영광스러운 명예로 여길 만한) 것도 없으며 험뜯는다고 해서 더 욱 될 것이 없네 그려.

▶ 근면하고 허욕을 부리지 않는 엄 행수

[왕십리의 무, **살고지**(독섬의 옛 이름)의 순무, **석교**(서대문 밖 일대)의 가지, **외**(오이),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열교**(부추와 비슷한 백합과 채소),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이태원)의 토란 따위를]([: 열거법. 구체적인 지명과 작물을 나열함.) 아무리 **상상등**(가장 높은 등급)의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 씨의 뚝거름을 가져다가 걸썩하게 가꿔야만 일 년에 육천 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엄 행수가 저 나른 똥은 서울 근교의 채소를 잘 자라게 함. → 엄 행수의 일이 결코 천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가치를 부여함.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엄 행수의 일은 생활에 구체적인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널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 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얼 하느냐고 하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엄 행수)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나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격식보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 → 실학자의 실용적 태도와 일치함. 작가인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청나라의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北學)을 주장하고,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등 개혁적인 입장을 취함. **‘박지원’이나 ‘실학’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검소하고 실용적인 삶을 사는 엄 행수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웃 입고 띠 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 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설이 되면 옷을 갖추어 입고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함. → 비록 천하지만 격식과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엄 행수의 태도) [그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다시 성실하게 일에 임함.) **엄 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엄 행수를 덕이 있는 참된 군자와 같이 보고 칭송함. → 신분의 귀천보다 사람의 됴됨이를 더 중시하는 선글자의 태도가 드러남. 설의법)

▶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예를 지킬 줄 아는 엄 행수에 대한 칭송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중용(中庸)』의 “소부귀(素富貴)하면 행호부귀(行乎富貴)하고 소빈천(素貧賤)하면 행호빈천(行乎貧賤)”이라는 구절. 옛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작품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선글자는 봉건 사회의 신분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저녁 **공무(공적인 사무)**를 같이 보는 데도 **분복(각자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인용.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분복을 타고나기 때문에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 맞게 살아야 함.)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타고난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함을 강조함. 설의법. **작년과 달리 선글자의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배웃을 입게 되면 모시웃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 - 관련 속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구체적인 상황에 빗대어 표현함. **구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의미로 타고난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태를 경계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여럿이 한꺼번에 몰려 움직이다.) 들고 일어나서 밭이랑이 묵어 자빠지네.]([]: 하늘이 분수를 정해 주었음에도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짐. → 각기 정해진 분복에 맞게 살 때, 세상이 평화로움.)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 중국 진나라 말기 농민이었던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후 항적(항우)이 군사를 일으켜 패왕이 됨. 이들은 중국의 농민 반란을 주도한 인물들로 작가는 이들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욕망을 드러냈다고 생각함. 관련 한자 성어 - 득룡망축(得隴望蜀): 농(隴)을 얻고서 축(蜀)까지 취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그래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서 **짐 질 것도 있고 탈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가진 것이 많으면 도둑들이 이를 노린다는 말 → 자신의 분수를 어기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는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의로움과 정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함. 의로움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드러냄.)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 주는 것**(반함(飯含) - 염습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풍습)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그러. 저 엄 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외면적으로는 더러울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덕이 높음. 대구, 대조)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에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큰 벼슬을 탐하지 않을 것임. ↔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

▶ 분수에 만족하는 삶을 강조하는 선글자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신분이 귀하다고 모두 덕이 높은 것이 아니며, 신분이 천하다고 모두 덕이 낮은 것만은 아님. 신분과 외양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 위선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음.)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

2025
고2 문학
창비

2025 고2 문학 창비 | 2(2)(1) 예덕선생전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단원 도입 글 확인

문학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수용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 생각(문학의 _____)을 언어로 형상화(문학의 _____)하여 표현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생각(창작 _____, _____)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 속에 표현된 작가의 정서나 문제의식에 공감(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① - _____적 수용)할 때,** 우리는 그 작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은 다양하기 마련이므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읽을 필요(문학 작품의 내용을 _____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함.)**가 있다.

▶ 문학의 _____적 수용

또한 우리는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용(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② - _____적 수용. **작년과 달리 「예덕선생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은 **문학을 접할 때 개성 있는 관점을 갖추게 하고(_____적 수용의 효과 ①), 작품의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 준다.(_____적 수용의 효과 ②) 나아가 주체적인 안목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방법 ③ - _____적 수용)**은 문학 작품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러한 [작품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타인의 관점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작품 감상의 결과를 _____할 때의 올바른 태도)

▶ 문학의 _____적, _____적 수용

문학과 매체

문학 작품은 **언어를 독자에게 전달(_____의 역할)해 주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 [문자가 없던 시절 문학은 **노래나 구술(_____ 발달 이전의 문학 전달 매체)**로 전승되었으나, 문자와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주로 **인쇄 매체(문학의 _____ 전달 _____)**로 생산·유통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문학 작품의 소통은 신문, 잡지, 단행본 등 기존의 인쇄 매체 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_____ 매체, _____ 매체, _____ 매체 등 → _____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 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게 됨.)**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학 전달 _____의 _____)

▶ 문학의 전달 _____의 _____

한편 **디지털 통신 매체(정보를 _____ 신호로 변환하여 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_____를 말할.)**가 다양해지면서 **문학 작품의 내용은 문자, 그림, 영상, 소리 등이 결합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전달(_____의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며 그 _____도 변함.)**되고 있다. 특히 **쌍방향 소통이 가능(인터넷 매체의 특성)한 인터넷 매체**는 그동안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었던 독자를 능동적인 독자로 바꾸어 놓았다. 작가가 **웹진(webzine) 출판하지 않고 _____상으로만 만들어 보급하는 _____**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 문학 작품을 올리면 [독자들이 **즉각적으로(_____의 특성) 감상을 밝히고 작품을 평가하며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창작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도 가능**]([]: 디지털 시대의 문학 - 작품을 _____하고 _____하는 과정에 독자가 _____적으로 참여함. **디지털 시대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생산과 수용 양상에 대한 내용의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해진 것이다.

▶ _____ 매체의 발달과 독자의 _____적인 작품 수용

매체들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작품의 미적인**

2025
고2 문학
창비

2025 고2 문학 창비 | 2(2)(1) 예덕선생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핵심 정리 - 「예덕선생전」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교훈적, 설득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람직한 벗 사귀는 의미와 참다운 인간상 양반의 허욕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답 형식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남.

2. 작품의 짜임

기	미천한 신분의 엄 행수를 벗 삼는 선골자에 대한 제자 자목의 비판
서	참된 벗 사귀는 의미에 대한 선골자의 가르침
결	선골자가 엄 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

3. '엄 행수'에 대한 평가

자목	천한 일을 하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선골자	쓸데없는 체면을 차리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능히 친구로 사귀 수 있고, 더 나아가 본받고 싶은 면도 있다.

4.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당시 사회의 모습

엄 행수	자신의 문수에 맞게 생활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정실하게 살아감.
------	---



당시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신의를 지키기보다는 아첨을 일삼음. 정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옷을 갖춰 입는 등의 체면을 차리는 것에 더 신경 씬. 문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욕심을 부림.
-------	--



엄 행수의 태도를 칭송하는 선골자를 통해 당시 양반들의 삶과 세태를 비판함.
--

5. 등장인물의 특성

선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 실질을 숭상하고 혁신적 안목을 지닌 인물
엄 행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되고 실속 있도록 행하는 인물 자기 문수를 알고 정실하게 살아가는 인물
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대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체면과 외양에 집착하는 인물

TEST 1단계

1. 핵심 정리 - 「예덕선생전」

갈래	<input type="checkbox"/> 전 소설, <input type="checkbox"/> 문 소설, <input type="checkbox"/> 편 소설
성격	<input type="checkbox"/> 자적, <input type="checkbox"/> 판적, <input type="checkbox"/> 훈적, <input type="checkbox"/> 득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벗 <input type="checkbox"/>권의 의미와 참다운 <input type="checkbox"/>간상 • 양반의 <input type="checkbox"/>욕과 <input type="checkbox"/>위<input type="checkbox"/>식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답 형식의 <input type="checkbox"/>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 특정 <input type="checkbox"/>물에 대한 상반된 <input type="checkbox"/>가로 인한 인물 간의 <input type="checkbox"/>등이 드러남.

2. 작품의 짜임

기	미천한 <input type="checkbox"/> 분의 엄 행수를 벗 삼는 <input type="checkbox"/> 글자에 대한 <input type="checkbox"/> 자 자목의 <input type="checkbox"/> 판
서	참된 벗 <input type="checkbox"/> 권에 대한 선글자의 <input type="checkbox"/> 르침
결	<input type="checkbox"/> 글자가 엄 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input type="checkbox"/> 유

3. '엄 행수'에 대한 평가

자목	천한 <input type="checkbox"/> 을 하는 비천한 <input type="checkbox"/> 분의 사람이므로 천하게 지낼 수 없다.
선글자	쓸데없는 <input type="checkbox"/> 면을 차리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자신의 <input type="checkbox"/> 분에 충실하며 <input type="checkbox"/> 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능히 <input type="checkbox"/> 구로 사귄 수 있고, 더 나아가 본받고 싶은 면도 있다.

4.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당시 사회의 모습

엄 행수	자신의 <input type="checkbox"/> 수에 맞게 생활하고 남의 것을 <input type="checkbox"/> 하지 않으며 <input type="checkbox"/> 실하게 살아감.
------	---



당시 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input type="checkbox"/>의를 지키기보다는 <input type="checkbox"/>참을 일삼음. - <input type="checkbox"/>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옷을 갖춰입는 등의 <input type="checkbox"/>면을 차리는 것에 더 신경 씀. - <input type="checkbox"/>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input type="checkbox"/>심을 부림.
-------	---



	<input type="checkbox"/> 행 <input type="checkbox"/> 의 태도를 <input type="checkbox"/> 송하는 선 <input type="checkbox"/> 자를 통해 당시 <input type="checkbox"/> 반들의 삶과 세태를 <input type="checkbox"/> 판함.
--	---

5. 등장인물의 특성

선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가를 <input type="checkbox"/>변하는 인물 - <input type="checkbox"/>질을 숭상하고 <input type="checkbox"/>신적 안목을 지닌 인물
엄 행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되고 <input type="checkbox"/>속 있도록 행하는 인물 - 자기 <input type="checkbox"/>수를 알고 <input type="checkbox"/>실하게 살아가는 인물
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대 <input type="checkbox"/>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 <input type="checkbox"/>면과 <input type="checkbox"/>양에 집착하는 인물

TEST 2단계

1. 핵심 정리 - 「예덕선생전」

갈래	ㄱ 자 소설, ㅎ ㅁ 소설, ㄷ 표 소설
성격	표 자 자, ㅂ 표 자, ㄱ ㅎ 자, ㅅ ㄷ 자
주제	• 바람직한 벗 ㅅ ㄱ 의 의미와 참다운 ㅁ ㄱ ㅅ • 양반의 ㅎ ㅁ 과 ㅎ ㅁ ㅁ ㅅ 에 대한 비판
특징	• ㅁ ㄷ 형식의 ㄷ ㅎ 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 특정 ㅁ ㅁ 에 대한 상반된 표 ㄱ 로 인한 인물 간의 ㄱ ㄷ 이 드러남.

2. 작품의 짜임

기	미천한 ㅅ ㅂ 의 업 행수를 벗 삼는 ㅅ ㄱ ㅂ 에 대한 ㅂ ㅂ 자목의 ㅂ 표
서	참된 벗 ㅅ ㄱ 에 대한 선글자의 ㄱ 르 ㅂ
결	ㅅ ㄱ ㅂ 가 업 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ㅁ ㅁ

3. '업 행수'에 대한 평가

자목	천한 ㅁ 을 하는 비천한 ㅅ ㅂ 의 사람이므로 천하게 지낼 수 없다.
선글자	쓸데없는 ㅂ ㅁ 을 차리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자신의 ㅂ ㅂ 에 충실하며 ㅅ ㅅ 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능히 ㅂ ㄱ 로 사귄 수 있고, 더 나아가 본받고 싶은 면도 있다.

4.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당시 사회의 모습

업 행수	자신의 ㅂ ㅅ 에 맞게 생활하고 남의 것을 ㅂ 하지 않으며 ㅅ ㅅ 하게 살아감.
------	--



당시 양반	- 벗을 사귀는 데 있어서 ㅅ ㅁ 을 지키기보다는 ㅁ ㅂ 을 일삼음. - ㅅ ㅅ 하게 일하기보다는 옷을 갖춰 입는 등의 ㅂ ㅁ 을 차리는 것에 더 신경 씀. - ㅂ ㅅ 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ㅁ ㅅ 을 부림.
-------	--



	ㅁ ㅎ ㅅ 의 태도를 ㅂ ㅅ 하는 ㅅ ㄱ ㅂ 를 통해 당시 ㅁ ㅂ 들의 삶과 세태를 ㅂ 표 함.
--	---

5. 등장인물의 특성

선글자	- ㅂ ㄱ 를 ㄷ ㅂ 하는 인물 - ㅅ ㅂ 을 숭상하고 ㅎ ㅅ 적 안목을 지닌 인물
업 행수	- ㅂ 되고 ㅅ ㅅ 있도록 행하는 인물 - 자기 ㅂ ㅅ 를 알고 ㅅ ㅅ 하게 살아가는 인물
자목	- 당대 ㅁ ㅂ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 ㅂ ㅁ 과 ㅁ ㅁ 에 집착하는 인물